



TIME 2022년 11월 7일자 CEO 인터뷰

에브리봇 - Engineering Excellence (에브리봇 CEO 정우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진공청소기의 발명은 가사노동에 큰 혁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제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 가운데 '에브리봇'은 바닥 청소용 로봇 청소기 쓰리스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온돌' 난방을 선호해 왔고 항상 바닥 청결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에브리봇은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융합해 발전시켰다.

쓰리스핀은 에브리봇의 5세대 로봇청소기로 날렵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한국 산업에 대해 존경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침대 아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가 가능하고, 11개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가구와 물체를 미리 감지해 부딪힘을 최소화하고, 2시간 동안 배터리 1회 충전으로 120분 이상을 청소할 수 있다. 7가지 청소 모드가 한 번의 터치로 작동하며,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에브리봇 정우철 대표는 "우리는 물걸레 로봇청소기로 더 꼼꼼하고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로봇 가전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업계 평균 15% 성장 수치에 비해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창립 이후 약 7년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이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최대한의 개발 및 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한국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에브리봇은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2021년 7월 주식가치 28달러로 첫 상장한 이후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3월 41달러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여타 시장과 함께 가격이 하락했지만, 현재 주가가 30달러까지 회복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에브리봇의 긍정적인 주가 곡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에브리봇의 재무 실적에 인상적인 느낌을 받음은 물론, 에브리봇의 R&D 분야에 자본을 투자하고자 하는 정우철 대표의 전략에 주목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차세대 로봇 걸레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홈 서비스 로봇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정우철 대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가정용 로봇은 이전에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지만,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정용 로봇이 업무 자동화로 인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시장 성장세가 연평균 약 15.5%를 기록하고 있고 2025년에는 85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홈 서비스 로봇은 곧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정우철 대표는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주인이 잠에서 깬다는 것을 로봇이 감지하고 불을 켜는 기술까지 꽤 쉽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AI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종류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